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9

I. 서론

25장-29장은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혜의 시각에서 설명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의 공의적 시선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게 된다. 또한 여러 주제들, 미련한 자와 거짓된 혀, 탐욕과 만족 등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상황들을 언급한다. 끝으로 30장, 31장에 가서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 어머니의 교훈,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II. 본문 : 다섯 번째 모음집,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잠언 25:1-29:27)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진 다섯 번째 모음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모음집들로 구별된다. 25-27장에는 권면이 담긴 내용들로, 28, 29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윤리적 고찰들이 담겨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왕권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 왕을 보좌하는 백성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또한 죄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데,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로 대표되는 죄에 얽혀 살고 있는 그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악랄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부각시키고 있다.

25상. 왕 앞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잠 25:1-14)

본 단락은 표면적으로 왕의 자질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자로서 지녀야 할 성격을 제시한다. 먼저 왕의 역할을 설명하고, 왕

앞에서 어떻게 행실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후, 재판정에서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보이며,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조언한다. 왕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인 동시에, 모든 언약백성들의 삶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1) 왕의 역할(25:1-3)

()는 일을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화는 일을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은 왕의 책무이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곧 일을 살피는 왕의 마음은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어야 된다는 뜻이다.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 왕 앞에서의 행실(25:4-7)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릇이 나올 수 있다. 찌꺼기는 무엇이고, 그릇은 무엇일까? 찌꺼기란 곧 왕의 통치가 견고해지지 못하게 하는, 즉 왕 앞에 있는 악한 자를 가리킨다. 찌꺼기를 제거하면 ()이 되듯, 왕의 통치가 의로 견고하게 설 것이다.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 것’도 왕 앞에서 제거될 만한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3) 재판과 언어사용(25:8-11)

8절 이하에서는 재판 및 언어사용에 대한 주제로 전개되는데, 핵심은 미리 살피고 잘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걸면,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 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재판과정 속에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난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듣는 자가 꾸짖으려 할 것이고 나 자신은 악평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을 하라는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❶ 꼭 필요한 경우에, ❷ 꼭 필요한 내용만 말하고, ❸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만한 말은 삼가는 말, 그것이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은에다가 금을 합한, 그만큼 가치 있는 말이라는 뜻이다.

4) 지혜로운 삶(25:12-14)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경우들을 보여준다.

(1)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12절)
**우리에게 ()가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들을 귀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

(2)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13절)
**충성된 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뜨거운 태양별 아래서 추수하는 시기에 눈 녹인 물은 쉽게 구할 수 없다. 이런 충성된 사자는 매우 귀하여 찾기 어렵지만, 일단 그런 사자를 찾게 되면 그가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3)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14절)
**14절은 과장하는 말에 대한 경고이다. 마치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 선물을 주겠다고 분위기만 만들어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들을 귀를 가지고, ()가 되어야 하되, 말만 하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25하. 합당한 행위를 하라(잠 25:15-28)

본 단락은 앞 단락의 성격을 가지고 그 영역을 일상으로 확대시켜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지혜자의 바른 이웃 관계, 그리고 악인에 대한 바른 처신을 강조한다.

1) 자기 절제의 중요성(25:15-17)
**분노를 참고 인내하면 지도자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음, 과식을 금함, 이웃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금함 → 내 만족만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적절한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2)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예들 ①(25:18-20)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금함, 패역한 자를 의지하지 말 것
마음이 아픈 자에게 노래하지 말 것 →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행동들, 이웃의 마음과 상황을 생각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3) 적절한 삶의 예들 ①(25:21-22)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으로써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21-22)

①그 원수가 스스로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

②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여호와께서 그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임

4)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예들 ②(25:23-24)

**참소하는 말, 다툼에 관한 이야기

5) 적절한 삶의 예들 ②(25:25-26)

**멀리 있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지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 것

6) ()의 중요성(25:27-28)

**2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7절에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신을 높이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넘어져 실수하게 된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와 절제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26장.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잠 26:1-12)

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미련한 자와의 일체의 접촉을 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매자들이 미칠 직접적, 가시적인 영향은 물론 간접적, 잠재적인 영향조차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경계하고 있다.

1) 미련한 자에 대한 가르침(26:1-12)

(1) 미련한 자의 특징(1-3)

①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음(1절)

②참새가 떠도는 것과 ()가 날아가는 것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뤄지지 않음(2절)

③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한 것처럼, 미련한 자는

쉽게 다스릴 수 없어서 힘과 권세로 통제할 수밖에 없음(3절)

(2)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법(4-5)

**4절과 5절은 서로 대조되어 등장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4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5절)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는 것 같지만, 4절을 일반적인 원리로 이해하면 된다. 미련한 자와의 대화를 통해 미련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될 경우’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의 미련함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련한 것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이기 때문이다.

(3)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6-11)

①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함(6,7)

②미련한 자는 좋은 결과를 낳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음(8,9)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8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 같으니라”(9절)

③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10)

④미련한 자는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며, 그 미련함을 즐겁게 여김(11)

(4) 미련한 자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12)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하는 결론인데, 조금 특이한 가르침을 전달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비하면,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26하. 게으른 사람과 거짓된 혀(잠 26:13-28)

26장 후반부는 주로 입술 즉 말에 대한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을 속이고 험담하는 말에 대해서 경고하며, 특히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1) 게으른 자의 실상(26:13-16)

(1)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13절)

****성실한 삶을 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함**

(2)문이 경칩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신의 침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음

(3)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15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놓쳐버리게 되는 게으른 자의 삶**

(4) 게으름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지경에 이른다.

****1-16절 전체의 문맥을 생각해보면,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임을 알 수 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게으름은 미련함을 심화시키며, 그 결과**
()에서 떠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한다.

2) 미련한 자의 실수(26:17-28)

(1)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17절)

****17절은 18-28절 전체를 이끌어주는 서론으로, 인생에서 뜻하는 앓은 실수를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스스로에게 입히지 말라는 화두를 던진다.**

(2) 거짓 입술의 사람(18-22)

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다른 이에게 말로 피해를 입히고서도 자기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악한 사람인 것이다.**

②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20절)

****험담꾼이 공동체의 다툼에 뺄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서, 그런 자가 없으면 공동체에 ()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③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22절)

**험담꾼이 다른 이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쉽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 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댈 수 있다는 것이다.

(3) “()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23절)

**“온유한 입술”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불타오르다”라는 뜻이다. 겉으로는 열정적인 입술을 가졌으나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진 표리부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나쁜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고 말한다. 나쁜 은이란 정제된 고급 은이 아닌 찌꺼기 은을 말한다.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인 것이 바로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다.

(4) 미움과 거짓말(24-28)

**24절부터는 ‘미움’이라는 주제가 등장한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내면에 미움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 ①24절은 ‘원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수’의 원어는 ‘미워하는 자’로서, 마음에 미움을 품은 나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 꾸미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속임수를 품고 있음
- ②거짓말을 해서 다른 이를 해치려 하고 그 미움을 감추려고 노력할지라도, 언젠가는 만천하에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
- ③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행동의 결과는 멸망임을 선명하게 보여줌

27상. 오늘과 내일을 위한 지혜(잠 27:1-16)

본 단락은 주로 친구와의 우정 및 그의 진실한 충고에 대한 내용이다. 친구가 베푸는 ()가 삶에 도움이 되니 그런 친구와 그의 충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친구의 충고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칭찬, 자랑, 분노, 지혜로운 삶의 태도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고, 진실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1) 자랑과 칭찬에 대한 교훈(27:1-2)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1절),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2절)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잘못된 분노와 진실한 충고(27:3-10)

(1) 분노와 투기(3-4)

①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

②분노의 힘보다 질투의 힘이 더 강하다. 즉 상황에 대한 화가

일으키는 힘보다, ()에서 나오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이다.

(2)친구의 진실한 충고(5-10)

**드러난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잘못을 꾸짖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면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는 삶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7절) 자신을 책망해줄 수 있는 진실한 벗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3)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훈(27:11-13)

(1)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11절)

**아들이 지혜를 선택하는 여부가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2) “()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12절)

(3)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13절)

** 아들에게 지혜를 선택하고 악을 멀리할 것을 조언한다.

4) 잘못된 관계의 예(27:14-16)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 저주처럼 생각될 수 있음은, 진정한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좋은 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27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잠 27:17-27)

27장 전반부에 이어서 진실한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잘못된 관계 설정의 예를 든 후, 올바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설명한다. 또한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공한다.

1) 진실한 관계의 유익(27:17-22)

①“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을
빛나게 하느니라”(17절)

**진실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다듬어주고 세워주게 되고, 그가 나를 다듬어주고 세워주게 된다. 적절한 충고, 따끔한 조언을 주려하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되고, 참고 인내해주게 되는 것이다.

②“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19절)

**내가 그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충고이다.

2) 양 떼를 돌보는 자가 되라(27:23-27)

**23-27절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준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킨다. 게으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거두고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28. 지혜자의 현명함과 탐심에 대한 경계(잠 28:1-28)

28장은 이스라엘의 정체 혹은 왕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 비록 포괄적인 구조를 찾기 힘들지만 본장과 29장은 의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들로 가득하다. 이런 점 때문에 ()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1) 의인의 현명함과 복된 삶(28:1-18)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비교의 근본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들고 있다.

의인	악인
타인에게 담대함(1b절)	타인을 경계함(1a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4b,7,9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4a절)
()를 깨달음(5b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함(5a절)
성실한 행위를 추구함(6s절)	부유하면서 굽게 행함(6b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8절)	()를 받음(8절)
자신을 스스로 살핌(11b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11a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림(13b절)	자신의 죄를 숨김(13a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14a절)	마음을 강박하게 함(14b절)

2) 탐심에 대한 주의와 지혜로운 선택(28:19-28)

본 단락은 의인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특별히 본 단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 주신 ()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본 단락의 두드러진 표현법은 철저히 한 구절 속에 대조가 되는 내용을 두어서 정해진 하나의 주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실은 다름 아닌 세상적인 욕심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 탐심을 좇는 자’라는 대조적 전개 속에서 살펴보려 한다.

의인	악인
자신의 토지를 경작함(19a절)	방탕을 좇음(19b절)
충성되이 일함(20a절)	속히 부하려고 함(20b절)
타인을 경책함(23a절)	타인에게 아첨함(23b절)
하나님을 의지함(25b절)	마음에 탐심이 있음(25a절)
지혜롭게 행함(26b절)	자기의 마음을 믿음(26a절)
가난한 자를 구제함(27a절)	가난한 자를 무시함(27b절)

29. 의인의 통치(잠 29:1-27)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처럼 본서의 지혜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 나라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1-24장도 마찬가지로지만 특히 25-29장에서도 이 사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4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바로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는 말씀(26절)은 사회 정의의 성취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게 되고 그 나라를 성취하실 의로운 왕의 임재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1) 참된 번영의 요체와 그 결과(29:1-14)

본 단락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제공한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지혜로운 재물 사용에 대해 가르치며, 스스로 ()에 빠지지 말 것을 조언한 후, 공동체를 이끌 때 기억해야 될 여러 실례들을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1) 의인의 통치와 악인의 통치(1-2)

****가르침을 받을 때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준다.** 가르침과 조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공동체에 알려진 사람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되어 더 큰 유익을 받게 된다.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자가 있을 때 공동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지만, 지도자가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사람일 때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지혜로운 재물 사용(3-4)

****3-4절은 재물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창기와 만나다라는 것은 지혜를 잃은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진 것이다. 또한 왕이 만약 뇌물을 받게 되면 나라를 멸망의 길에 빠뜨리게 된다. 왕은 재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야 한다.

(3) 올무에 빠지지 마라(5-6)

①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5절)

**귀에 솔깃한 말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

②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6절)

**의인은 자신의 앞에 그물이 펼쳐질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으며, 또한 항상 계획을 선하게 세우기 때문에 자기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은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길이 되는 것이다.

(4) 지혜로운 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훈(7-12)

① 의인-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줌 / 악인-자신의 이익만 생각

② ()-발생한 분노조차 없어지게 함 /
거만한 자-성읍을 다툼 가운데로 몰아감

③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재판정에 서게 되면, 누군가는 웃든지 노하든지, 결국 ()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자 때문이다. 미련한 사람은 화평함을 알지 못하기에 다툼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

④ 정직한 자-억울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 /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이유 없이 피를 흘림

⑤ 지혜로운 자-감정을 억제 / 어리석은 자-감정을 그대로 드러냄

⑥ 공동체지도자는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공동체는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된다.

(5) 가난한 자를 ()(13-14)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며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아보고, 공평하게 변호해주어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

2)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29:15-27)

본 단락은 자녀교육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을 올바로 시행하려는 전반부(15-21절)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진술하고 있는 중반부(22-24

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는 후반부(25-27절)로 구분된다.

의인	악인
마음이 겸손하여 영예를 얻음	마음이 교만함으로 꺾이게 됨(23a절)
하나님을 의존함	사람을 두려워함(25b절)
일의 작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둠	통치자만을 의지함(26a절)
악인에게 미움을 받음	의인에게 미움을 받음(27a절)

***“()가 없으면 백성이 ()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18절)

묵시 즉 예언이 없으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태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공동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Ⅲ. 본문 : 여섯 번째 모음집, 아굴의 잠언(잠언 30:1-33)

30상. 개인적인 고백(잠 30:1-9)

본 단락은 아굴의 잠언이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지혜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허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동시에, 지혜자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죄악된 성향과 범죄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결국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친다.

1) 지혜를 위한 말씀의 중요성(30:1-9)

**진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 질문방식으로 드러낸다. 단순히 우주 만물의 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욥38-41장)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1) 지혜를 갖지 못한 한계(1-4)

**아굴은 매우 논리적이고 화려한 어법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간다. ❶ 자신이 지

혜를 소유하지 못했고, ❷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고백한다. 또한 ❸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했다. 즉 이 말은 아굴이 문예적 서술로서, 사람이 지혜를 갖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4절에서 가리키는 존재는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2) 말씀의 중요성(5-6)

- ①“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5절)
- ②“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6절)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셨음을 강조한 2-4절에 이어, 5-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3) 여호와 경외의 중요성(7-9)

- ①“곧 헛된 것과 ()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8a절)

**거짓말을 멀리하는 방법은 5-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다. 첫째 간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이룰 수 있다.

- ②“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8b절)

**두 번째 간구의 핵심은 ‘만족’이 나의 만족한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얼마만큼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에 자기 삶을 놓을 때, 참 만족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2) 지혜로 인한 만족(30:10-16)

(1) 지혜 없는 무리의 실례(10-14)

- ①부모를 저주하며 축복하지 않는 무리 → 마땅히 공경을 표해야 할 권위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음

- ②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씻지 않아서 매우 더러운 상태에 있는 무리
→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사실은 미련함에 빠져 있는 자들
- ③ 눈이 높아진 교만한 무리 → 더 이상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며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자들
- ④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하는 지도자 무리 → 잠언 곳곳에서 악인의 모습 속에 반복된 태도 중 하나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2) 만족을 모르는 경우들(15-16)

**(),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만족을 모르는 불 → 각각 죽음과 생명 없음, 그리고 자연물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참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잡을 때 얻을 수 있다.

3) 순종하지 않는 자녀(30:17)

→ ()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패망의 결과를 얻음

30하. 기타 잠언록(잠 30:18-33)

본 단락은 아굴의 잠언 후반부로서 ‘~하는 것이 서너 가지 있다’는 형태의 문단들이 연속해서 등장한다. 이 문단들에는 그동안 잠언의 앞부분에서 사용되었던 주제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참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1)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30:18-20)

**()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네 가지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취가 사라져버린다. 특히 음녀의 자취는 거짓된 존재이고 참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음녀를 멀리해야 한다.

2)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30:21-23)

**종이 임금인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 모두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행복을 얻은 경우들이다.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내는 것, 즉 탐욕의 주제에 걸린다.

3)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30:24-28)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 약한 종류지만 바위에 집을 지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반, 임금이 없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큼 작은 크기지만 가장 넓은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이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지혜로운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장 잘 걷는 것 서너 가지(30:29-31)

**사자, 사냥개, (), 왕 → 잠언 전체 맥락에서 길 혹은 걸음은 지혜의 길을 뜻한다. 지혜의 길을 얻었기에 자신의 삶에서 당당할 수 있고, 권위를 얻은 것이다. 지혜를 얻은 최종적인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묘사로 보인다.

IV. 본문 : 일곱 번째 모음집, 르므엘 왕 어머니의 교훈(잠언 31:1-9)

31상. 지혜자로서 통치자가 경계해야 할 대상(잠 31:1-9)

31장 앞부분은 르므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잠언이다. 여자와 포도주를 조심하라는 권고로, 왕으로서의 바른 통치를 위협하는 요소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용상 10-31절의 ()에 대한 노래와 연결된다.

1) 멸망케 하는 여자를 주의하라(31:1-3)

①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2절)

**“내 아들이 무엇이냐”라는 불완전한 문장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아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할 말이 있음

②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3절)

**왕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그 다음 내용인 포도주, 독주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를 주의하라(31:4-7)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굿게 할까 두려우니라”, 곧 술을 마시다가는 나라의 법규를 잊어버려서 곤고

한 자들에 대한 재판이 잘못 처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삼가 주의하라고 경고한 대상은 왕을 멸망시키는 여인과 술이었다. 그 이유는 왕의 ()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통치를 어지럽히는 그 어떠한 것도 왕은 멀리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다.

3) 공의를 성취하는 왕이 되라(31:8-9)

①“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8절)

②“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9절)

****곤고한 자와 ()를 신원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왕으로서 걸어갈 지혜의 길이다.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의 길로 가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서까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31하.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잠 31:10-31)

31장 후반부는 현숙한 여인을 칭송한 노래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이 언급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지혜의 길을 상징한다. 지혜를 얻은 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자이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본 단락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①현숙한 아내를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진술하고 (10-27절), ②현숙한 아내의 근원을 알려 주고 있다(28-31절).

1) 현숙한 여인의 가치(31:10-27)

①“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보다 더 하나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을 땀절하지 아니하겠으며”(10-11절)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받는다. 그녀로 말미암아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②고대사회에서 남성들이 수행했을 만한 일들을 현숙한 여인이 감당한다. 1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15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8절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베를 짠다. 21절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옷을 미리미리 지어 입히고, 14절에서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20절에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제한다.

곤고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겨울을 대비해 옷을 미리 만드는 치밀한 준비성도, 이런 모습을 보아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임에 틀림없다.

③“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28, 29절)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 이 여인을 칭찬한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인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는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전한다. 참으로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임에 분명한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

④“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0절)

**여인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잠언 내내 가르쳐왔다. 그리고 잠언 결론 부분인 31장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 이 여인은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묘사된다.